

김영록 전남지사, CES·투자유치·의대 벤치마킹 북미행

최초 전남관 방문 RE100·넷제로·AI 첨단농산업 3대 비전 선포 투자 유치·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의대 설립 성공사례 견학

김영록 전남지사가 세계 최대 규모 가전·정보통신(IT) 전시회인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CES)' 전남관 운영 참관과 수출용 농수산물 가공식품 공장 투자협약, 의과대학 설립 성공 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해 8일 7박9일 일정으로 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른다.
김 지사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전남관 운영과 투자

유치, 세계 기업들과의 소통 등 다양한 행보로 전남을 홍보할 계획이다.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회의(CT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정보통신 전시회다.
김 지사는 9일 전남관 개관식에서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미래 산업을 조망하고, 대비한다는 취지로 재생에너지100(RE100)과 넷제로

(Net-zero),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등 3대 비전을 선포한다.
이어 전남지역 참가기업 11곳을 방문해 격려하고 수출기업과 농수산 가공식품 공장 투자유치 협약을 맺고 기업관(기아·존디어·아마존 오토모티브·현대 모빌리티 등)도 참관할 예정이다.
10일엔 삼성 SDS, LG CNS 등 국내 대기업과 존 디어, 스페이스 플로리다, 플러그앤플레이(PNP) 등 글로벌 기업 CEO와 임원 면담을 갖고 상상과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세계최대 엑셀러레이터(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기업)인 PNP와 전남의 글로벌 스

타트업 발굴·육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하는 등 전남 중소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개척에 나선다.
이어 12일엔 뉴욕에서 H마트 본사와 농수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전라남도의 맛, 남도김치 양념의 현대적인 맛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미드타운의 플라이트데크(The Flight Deck)에서 남도음식 홍보행사를 진행한다.
15일엔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과대학을 방문, 두 대학이 협력해 단일 의대를 설립, 지역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한 최고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의대

총장을 면담하고, 전남도의 의료문제 해소를 위해 의대 유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CES 전남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닌 협업, 네트워킹,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플랫폼"이라며 "전시회 참여 기업과 협약, 네트워킹을 통해 전남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개척하고, 농산물 수출 기반을 세계무대로 넓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던 온타리오 의대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업무협업을 통해 전남 의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주차난 해소' 광주시교육청 주차타워 이달 말 착공

44억7000만 원 투입...2층 3단 구조 151대 주차



광주시교육청 주차장이 민원인과 직원들의 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광주시교육청 주차타워 조성사업이 이달 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교육정보원 부지 내 주차타워 신축을 위한 입찰 과정을 밟고 있다.
신축 주차타워는 면적 3107㎡·2층 3단(옥상) 철골 구조로, 총 151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다. 공사 예정 금액은 44억7000만 원이다.
이달 내 업체가 선정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게 시교육청의 방침이다. 공사 기간은 4개월이다.
시교육청의 기존 주차면수는 186면이다. 500명이 넘는 직원에 민원인까지 더하면 주

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교육청은 현 청사를 광산구 신창동 교육시민협치진흥원 부지로 이전하더라도 주차타워 신설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흠어져 있던 산하기관이 현 청사로 입주할 계획인데다 그 동안 주차장 부족으로 활용률이 떨어졌던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의 대강당도 학생·학부모를 위한 공간으로 적극 사용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교육시민협치진흥원 부지로 청사 이전을 확정했으며, 오는 2028년 건물 완공을 목표로 설명회·타당성 조사·중앙투자심사·설계공모 등의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다. 신청사가 들어설 교육시민협치진흥원 부지는 연면적 2만8143㎡이다. 시교육청은 사업비 1222억5500만 원을 들여 청사를 신축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이 지체됐다. 입찰이 끝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사 이전까지 최소 4~5년이 남는데다 청사를 이전하더라도 현 화정동 청사 활용 계획에 따라 주차장 증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용일 기자



전남도 불법광고물 클린존 효과 톱톡...5만6000건 정비

전남지역 일선 자치단체가 운영중인 불법광고물 금지구역 '클린존'이 톱톡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22개 시·군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차로 23개 지점을 클린존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 5만6154건을 정비했다. 월 평균 1만8700건, 단속지점별로 2400여 건이 수거된 셈이다.
불법 정당한수막 설치 건수도 11% 가량 줄었다.
수거된 불법현수막 중 5만460자는 물고기 모양의 자루 등으로 재활용돼 현수막 조각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도 줄었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옥외광고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불법광고물 클린존, 현수막 재활용과 함께 민·관이 함께한 클린데이·클린워크 캠페인, 전국 장애인체전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등도 호평받았다.
박우욱 도 문화융성국장은 "이번 수상은 22개 시·군과 주민 참여로 이뤄져 더욱 의미있다"며 "도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을 위해 클린존 확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등 옥외광고 분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기 기자

조선대학교, 올해 글로벌대학30 선정에 '사활'

조선대학교가 범조선대글로벌추진단을 구성하고 킥오프회의를 진행하는 등 올해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에 위해 다시 한 번 발을 걷어 붙였다.
조선대는 정부가 추진중인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첫 행보는 범조선대글로벌추진단 구성과 이

에 따른 킥오프회의였다. 이 자리에서는 범조선대글로벌추진단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계획 등이 설명됐다.
범조선대글로벌추진단은 대학 내부 공모와 추천 등을 통해 선발된 교직원 52명으로 채워졌다. 전제열 부총장이 단장을 맡아 이끈다. 부단장 박현주 교수, 실무팀장 이강희 팀장, 실무위원 김희욱 담당 등으로 꾸려졌다.

이러진 글로벌대학30 회의에서는 글로벌대학30 사업내용, 교육 혁신 전략, 특성화분야 운영 전략, 도시캠퍼스 등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김충선 총장은 "범조선대글로벌추진단 출범을 시작으로 올해 글로벌대학30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역과 함께 공생발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꼭 선정돼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수권 기자

광주시 겨울철 취약도로 18곳 선정...선제 제설작업

광주시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겨울철 안전 취약도로 18곳을 선정하고 선제적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안전 취약도로 18곳을 선정하고 대설·한파 등에 대비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동절기(12~3월) 공공·민간데이터 6종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겨울철 광주지역 안전 취약 도로로는 18곳이다.
자치구별로 서구·광산구 각각 6곳, 북구 4

곳, 동구·남구 각각 1곳이다.
취약 도로로는 동구 학동 남광주고교와 남구 백운2동 동아병원 앞이다.
서구는 벽진동 서창교차로, 치평동 롯데마트 맥스 부근, 유촌동 무진대로 초입, 쌍촌동 상일여고 인근, 유덕동 광신대교, 화정2동 쪼뿔터널이며 광산구는 광산구 오운동 평림교, 삼도동 평림교, 어룡동 송산대교, 우산동 극락교, 침단1동 광주과기원 축구장 인근, 침단2동 침단중앙로 등이다.
이슬비 기자

한국연립진흥재단
Korea United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녹색에서 재탄생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았습니다.

연도	보험료 납부액 (원)	보험료 대비 혜택 배수
2011년	240,833원	1.1배
2012년	125,531원	1.7배
2013년	79,147원	2.1배
2014년	48,103원	2.7배
2015년	26,697원	5.3배
2016년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